



엄마 벌써 퇴근했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주 4.5일제 어떤가요

Cover Story 대선공약 주목받는 주 4.5일제

여러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 시작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학교도, 회사도 금요일 점심 때까지만 딱! 열심히 하고 오후부터는 폭 쉬거나 2박3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주말을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 4.5일제'가 주목받고 있어요. 주 4.5일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을 위해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아이디어예요.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됐어요. 하나는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되 임금은 유지하자는 의견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소처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금요일엔 오후 1시까지만 일하는 거죠. 직장인들의 절대적 휴식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산 여력이 떨어져 이전과 동일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예요.

다른 하나는 일주일 근무 시간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금요일 단축 근무만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일을 안하는 시간만큼 다른 요일에 일을 더하는 거죠. 월요

일부터 목요일은 지금보다 1시간씩 더 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고 대신 금요일은 일찍 마치는 식이죠. 근무 시간이 동일해서 월급은 유지되겠지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일 직장인들의 부담도 늘어나요.

많은 직장인은 주 4.5일제 도입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쉬면 피로도 덜고 가족·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들은 걱정이 많아요. 지금도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주 4.5일제까지 도입되면 추가 근무수당을 주거나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하는 등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특히 연구개발(R&D)처럼 시간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은 주 4.5일제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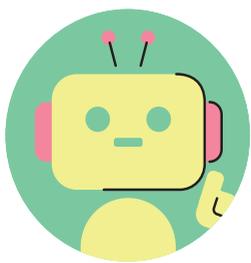
월·화·수·목·금요일 일하고, 토·일요일이 틀 쉬는 주 5일제는 2003년 도입된 후 20년 넘게 이어져왔어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주 4.5일제가 정말 도입될지,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이 우리 사회에 더 잘 맞을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정치권과 기업,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김혜순 기자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게임 속 아바타... 내 표정과 똑같네



AI 최신 트렌드



크래프톤의 신작 오픈월드 게임 '인조이'의 이미지.

크래프톤

여러분, 혹시 게임 '심즈'를 플레이해본 적 있나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장르의 대표 주자로 유명한 게임이죠. 그런 심즈를 바짝 쫓고 있는 한국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인조이(inZOI)'입니다.

'인조이(inZOI)'는 지난 3월 28일 얼리 액세스(체험판 느낌)로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출시 당일 40분 만에 글로벌 최대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인 스팀에서 최고 인기 게임(판매 수익 순) 1위를 기록한 데다가 출시 일주일 뒤에는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습니다.

유튜브와 실시간 방송 플랫폼 모두 곧바로 '인조이' 플레이 영상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높은 자유도의 커스터마이징이 방송인들의 관심을 끌었죠. 아바타 '조이'의 외형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옵션은 250개 이상 존재하고 눈꼬리, 입술 두께, 손톱 등 더욱 디테일하게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적인 그래픽까지 더해지면서 뉴진스 해린과 아이브 장원영을 닮게 만든 '조이'를 보면 스크린샷인지 실제 해린과 장원영인지 비교하기 힘들 정도예요. 처음에는 커스터마이징과 실사 그래픽에 흥미가 생겨 게임을 시작했다면, 플레이 중에는 '인조이'의 신기한 기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모두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거예요.

사진만 있으면 춤부터 패션까지 완전 정복

보통 게임 속 캐릭터나 아바타들은 정해진 동작만 취할 수 있습니다. 몇몇 게임은 특정 모션을 팔기도 하죠. 하지만 '인조이'의 아바타 '조이'는 모든 동작을 다 따라 하는 'AI 모션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 하면 파일 속 인물의 자세나 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발을 뻗는 발레 자세부터 지드래곤의 '투 배드(TOO BAD)' 안무까지 뒤편 가능합니다.

사진상의 액세서리나 가구를 게임으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3D 오브젝트 생성 기능'은 사진 속 사물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3D 모델링을 해줍니다. 사물의 뒷모습이 사진에 안 나와 있어도 자연스럽게 생성돼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바타에 내가 쓰는 책가방을 메게 할 수도 있고, 비싼 명품 액세서리도 채워줄 수 있답니다.



인조이 속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똑 닮은 조이의 모습.

표정부터 동작까지... 진짜 나의 아바타

'인조이'의 가장 놀라운 기능은 페이스 캡처와 모션 캡처 기능으로 아바타 '조이'와 내가 동시에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 캡처(Facial Capture)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조이'에게 동일하게 표정 변화를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가늘게 뜨면 서웃으면 '조이'도 똑같이 실눈을 뜨고 웃어요. 마치 영화 '아바타' 촬영 현장에서나 봤을 법한 이 기술은 아이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게임과 아이폰을 연동하면 아이폰의 페이스 ID 센서라는 것을 사용하여 플레이어의 얼굴을 스캔하는 거죠.

표정뿐 아니라 몸동작도 '조이'가 따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션 캡처(Motion Capture)도 페이스 캡처처럼 내가 취하는 자세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기능이예요. 페이스 캡처처럼 간단하고 쉽게 노트북 카메라와 웹캠으로 가능합니다. 내 표정과 자세를 그대로 따라 하는 '조이'라니, 정말 또 다른 내가 다른 세계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지 않나요?

다른 플레이어가 아니라 NPC라고요?

게임을 플레이하면 NPC(Non-Player Character·비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나게 돼요. 정해진 대화와 행동을 반복하는 NPC에서는 새로운 재미를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NPC가 모두 다른 행동과 반응, 또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면 어떨까요? '인조이'가 바로 그런 AI NPC를 개발해냈습니다.

'스마트 조이(Smart Zoi)'는 맵 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NPC 기능이예요. 이 기능은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의 협작으로 실제 인간과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현실감을 보여줘요.

각각의 '스마트 조이'는 플레이어와의 대화를 모두 기록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상황에 맞게 보입니다. 이전에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후 대화에서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요.

실제 인간 관계처럼 NPC 한 명 한 명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조이' 속 세계를 보고 있다면 정말 또 다른 현실 세계로 느껴지기까지 해요.

하소윤 인턴기자



책상 3시간 앉아 있어도 순공은 30분

여러분, 순공(순수 공부) 시간 체크해본 적 있나요? 공부하려고 3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막상 순공 체크용 타이머를 보면 1시간도 안 찍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졸리면 세수를 하러 갈 때도 있고, 친구가 공유한 릴스도 보고 하면 시간은 순식(순식간에 삭제)됩니다. 흘러버린 시간과 타이머 간의 차이가 클 때면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루 8시간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실제 집중해 일한 시간은 훨씬 짧을 수 있다는 거죠. 막상 그날 끝낸 일을 돌아보면 두세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양인 경우도 있거든요. 책상에는 앉아 있지만 그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오는, 효율성 문제는 개인에게도 기업에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바로 주 4.5일제예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얼마나 돼?

우리는 종종 “오래 앉아 있으면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생산성이 더 중요해요. 노동생산성이란 일의 효율성을 뜻해요. 기업의 성과인 생산량을 근로자 수와 근로 시간 등 투입된 노동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똑같은 일을 맡겼을 때 A라는 사람은 3시간 만에, B는 6시간 만에 끝냈다면 A의 노동생산성이 B보다 2배 높은 거죠.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 적게 일함과 동시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입니다. 그런데 연간 총 근로 시간은 6위라고 해요. OECD 국가의 평균 근로로는 1742시간인데 한국은 1872시간인 거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는데 근무 효율성은 낮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 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장시간 근무 습관이 비효율과 저생산성을 균한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오래 일한다고 무조건 결과도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주 4.5일제, 뭐가 좋나요?

이른 금요일 퇴근은 뭐니 뭐니 해도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보장해줘요. 주말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작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이나 복지보다도 워라벨이 더 중요하다고 뽑은 사람이 10명 중 6명이었다고 해요.

워라벨을 챙기면 번아웃 같은 문제가 줄어들고 일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어요. 번아웃은 과로를 하게 될 때 몸과 정신이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에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나 번아웃증후군을 겪어봤고 그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이 1위로 뽑혔어요. 장시간 근무가 번아웃을 불러온 거죠. 주 4.5일제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불필요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사무실에서 일 외적으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노동생산성 모두 향상되는 거죠.

현실적 어려움은 없을까?

무조건적인 주 4.5일제의 도입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콜센터나 생산 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제조업 같은 경우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비는 시간만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해요. 기존 인원 그대로 연장근무를 시키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비용 부담이 높아져요.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은 특히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은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맞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모든 기업,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각 기업이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하소윤 인턴기자

주 4.5일제 실효성 있을까
韓 노동생산성 OECD 33위
오래 일하지만 효율은 낮아

금요일 이른 퇴근 보장하면
워라벨 확보로 생산성 향상
기업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세계로 날아오르는 불닭, 코첼라도 접수

〈미국 최대 음악 축제〉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2025년 미국 음악 축제인 '코첼라'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삼양식품이 '불닭부스'를 운영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양식품

날 수 있는 닭은? 바로 불닭!

여러분, 불닭볶음면을 좋아하시나요? 불닭볶음면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미국의 대규모 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아츠 페스티벌'에 가수 제니, 엔하이픈과 함께 삼양식품의 '불닭'이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불닭은 코첼라에서 '불닭 부스'를 운영해 유명 아티스트들과 글로벌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요. SNS상에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언급된 스타 브랜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삼양식품이 코첼라의 '불닭 부스'에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지 알아보십시오.
2.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는 시가총액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봅시다.

이러한 불닭의 해외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7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라면 업계 1위 농심의 시가총액인 2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엄청난 금액이죠. 이 정도면 정말 '세계로 날아오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동결로 숨 고르는 한국

TV에서 기준금리가 올랐거나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 4월 17일 한국은행이 연 2.7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인데,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는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고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부채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물가안정),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와 소비가 증가해 내수가 활성화됩니다(경제 성장).

▶ NIE 준비하기

1.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국내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2. 다음 기준금리 발표일인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에는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해봅시다.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숨 고르기'를 선택했는데요. 일각에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WTO, 세계 무역 성장률 -0.2%

세계 무역은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세계 무역에 빨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4월 16일(현지시간) WTO(세계무역기구)는 '글로벌 무역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을 -0.2%로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올해의 상품 무역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이라 보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 NIE 준비하기

1. WTO의 '글로벌 무역 전망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2. 관세 폭등이 불러온 세계의 교역 감소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봅시다.

특히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쉽게 말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번 WTO의 전망 발표는 한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데요. 90일간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가 다시 시행될 경우, 성장률 전망이 최대 1.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요. 박현진 연구원



7조원

4월 16일 불닭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시가총액

2.75%

4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0.2%

WTO가 발표한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

불황에도 코카콜라는 끄떡없대요



연합뉴스



세계는 지금
World News

코카콜라가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어요. 아이돌 그룹 NMIXX 해원과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이 함께한 신규 광고 ‘코-크 타임(Coke TIME)’인데요. “힘든 안무? 지금이야! 코-크 타임, 코카콜라와 함께 다시, 시작”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아이콘을 사용함으로써 젊은 에너지를 부각한 이번 광고는 모델의 캐릭터성과 브랜드 메시지가 잘 부합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죠.

불황 속에서도 잘나가는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성공가도는 비단 국내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며 더욱 잘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에 불경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코카콜라는 오히려 역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S&P500이 올해 8% 하락할 때 코카콜라의 주가는 16%나 오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지수란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힘들겠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한 게 주가 지수입니다. S&P500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1등부터 500등까지 나열한 뒤 이들을 하나로 묶은 지수인 거예요.

코카콜라의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미국에서 코카콜라는 필수소비재에 가까운 기업이에요. 필수소비재란, 말 그대로 생활을 이어가는 데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물품을 말해요. 라면이나 음료수 같은 식품, 샴푸와 칫솔 같은 위생용품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는 라면을 끊고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며, 샴푸나 칫솔도 사지 않을까요?

대부분 “아니요”라고 답할 거예요. 경기가 나빠져도 먹고 씻고 기본적인 생활은 이어가야 하니까요. 이처럼 필수소비재는 경기에 따라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주가가 하락해도 필수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비교적 선방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경기 침체에 투자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기도 해요. 이 특징을 ‘경기방어적’이라고 부릅니다. 불황에서도 수요가 유지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이죠.

코카콜라가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 경기방어적인 특성 덕분이에요. 가계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콜라를 눈에 띄게 줄이지는 않아요. 물론 콜라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콜라는 여전히 ‘국민 음료’라 불릴 만큼 소비층이 두꺼워요.

캔 vs 플라스틱(PET)…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처는

코카콜라가 필수소비재라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캔 음료 부문에서의 타격이 예상돼요.

코카콜라는 캔 음료를 만들기 위해 캐나다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2일부터 미국 정부가 수입산 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는 코카콜라 캔을 만드는 데 드는 알루미늄 가격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콜라한 캔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셈이죠.

이처럼 원가가 상승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이 오른 콜라는 이전보다 덜 팔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필수소비재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민감한 소비자들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이번 관세 조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컴퍼니 CEO는 “알루미늄 캔 가격이 오르면, 페트병 제품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어요. 캔의 핵심 원재료인 알루미늄 수입이 어려워진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플라스틱 페트병 음료 생산을 늘려서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코카콜라는 단지 ‘경기 방어적’인 소비재일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도 갖춘 기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궁석 인턴기자

MZ세대 아이콘 출연
호평 받는 코카콜라 광고
필수소비재 기업 코카콜라
경기방어적 특성으로 선방
글로벌 관세 충격에도
다른 제품으로 유연히 대처

AI한테 맡기니 돈 더 잘 불러줘요



NIE/영문뉴스 돋보기

AI delivers 20.3% retirement pension returns in Korea

2025.04.15.

Robo-advisors (RAs), automated financial advisor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technology, are yielding strong results, achieving 20.3 percent ①**annual returns** in retirement ②**pension** management.

According to RA testbed data released by Korea Securities Computer Corp. (Koscom) on Monday, the average annualized return for the top 20 retirement pension RA algorithm products reached 20.3 percent – nearly four times the 5.26 percent average return across all domestic retirement pensions in 2023.

Pension returns were unusually strong in 2023, largely due to a **rebound** in the stock market. The average annual returns for domestic retirement pensions were just 0.02 percent in 2022, 2.00 percent in 2021, and 2.58 percent in 2020.

The average annualized return across all RA algorithm products submitted by local asset managers, including those for pensions and equity-type investments, was also **robust** at 9.33 percent. By sector, securities firms posted the second-highest average annualized return at 8.14 percent, followed by advisory and discretionary firms, mostly startups, at 4.44 percent, and banks at 3.24 percent.

RAs are **non-face-to-face** wealth management services that use AI and big data algorithms to analyze investor preferences, goals, and market conditions, automatically building and managing ③**portfolios**.

Expectations rise for a shift away from low-④**yield**,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toward higher-return strategies, as RAs take a more **prominent** role in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By Jung You-jung, Hong Seong-yong, and Chang Iou-chung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 mk.co.kr, All rights reserved]



게티이미지뱅크

한눈에 보는 기사 요약

로보어드바이저(AI 및 빅데이터 기반 자동 재무 관리 서비스)가 퇴직연금에서 연간 20.3%의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2023년 국내 전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평균 5.26%였는데, 이의 4배 수준인 거죠.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상품의 평균 연환산 수익률도 9.33%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비대면 자산 관리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선호, 목표,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하는데요. 이 서비스가 퇴직연금 운용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제용어

① **Annual returns**: 연간 수익률, 즉 투자나 금융상품이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를 말합니다.

② **Pension**: 연금, 즉 일정 기간 적립을 한 후 이 기간이 지나면 적립을 한 기간의 원금과 수익에 기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뜻합니다.

③ **Portfolio**: 투자 포트폴리오(investment portfolio)란 투자자가 자산을 분산하여 운용하기 위해 구성한 여러 종류의 자산 집합을 뜻합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Yield**: 주식, 채권 등의 투자상품에서의 수익률을 뜻합니다. 'High yield'는 높은 수익률, 'Low yield'는 낮은 수익률을 말합니다.

유용한 단어 및 표현

Rebound: 반등, 회복 (The rebound in the stock market → 주식 시장의 반등)

Robust: 탄탄한, 강력한 (This stock showed robust annual returns. → 이 주식은 탄탄한 연간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Non-face-to-face: 비대면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interactions became a normal part of daily life.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 소통은 일상이 되었다.)

Prominent: 중요한, 현저한 (AI is playing a prominent role in the workplace nowadays. → 요즘 AI가 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주희 연구원

판화가 울퉁불퉁하네 ... 무슨 기법이지?



박수근 화백의 대표작인 '빨래터'의 디지털판화 작품을 카메라로 찍은 모습으로 울퉁불퉁한 질감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현진 연구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의 끝에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몽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박수근 판화 특별초대전'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화가로 그의 작품은 미술 교과서에도 항상 실릴 만큼 매우 유명하답니다. '길가에서'나 '빨래터'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유명한 작품들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박수근 화백의 대표 작품들을 디지털판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판화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미술 수업 시간에 다들 판화 실습은 해보셨나요? 저는 고무 판화 틀이나 왕 지우개를 조각칼로 열심히 파내던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박수근 판화전에서는 24점의 회화 작품과 8점의 목판화 작품이 전시됐는데요. 회화 작품들은 모두 '디지털판화' 작품입니다.

디지털판화는 쉽게 말해 '원본 작품을 디지털로 복제한 작품'인데, 단순히 프린터로 복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디지털판화에는 '에디션 넘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저작권 협조를 받은 원본 작품을 제한된 수량으로만 복제해 유통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박수근 화백의 자제분들과 연구소의 동의하에 30개만 만들고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전시장 입구에 판화의 표면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저도 너무 신기해서 오랫동안 쓰다듬고 있었답니다.

울퉁불퉁 그림 기법은 미스터리?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은 화강암 표면과 유사한 울퉁불퉁한 질감으로 유명한데요. 물감을 여러 겹 쌓아 올린 마티에르 기법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판화로 이런 울퉁불퉁한 질감까지 살렸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박수근 화백의 이 그림 기법을 아무도 따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수근 화백은 51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제자를 양성하지도 않았고 자녀분들도 어릴 때라 정확한 기법 전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화가로 활동하는 박수근 화백의 자제분들이 어깨 너머로 보았던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그 느낌까지는 살리지 못했다고 해요. 한국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림 기법이 후대에 계승되지 못한 점은 대한민국 문화계의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시대상

박수근 화백은 정감 가는 모습들을 주로 그림에 담았는데요. 1950년대 골목길의 풍경, 빨래터의 모습, 나무와 사람 등 따뜻한 느낌의 일상을 가득 담은 그림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박수근 화백이 그린 그림들의 배경은 그다지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국전쟁으로 인해 젊은 남성들이 많이 죽고, 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암울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소쿠리를 이고 가는 여인들이나 장기를 두며 노는 노인들의 모습이 젊은 남성들의 모습보다 더 많이 등장했던 거죠.

더 깜짝 놀랐던 것은 '길가에서'라는 작품에 나온 아이를 업고 있는 소녀가 실제 박수근 화백의 따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어른들은 일하느라 바빴고, 아기를 돌보는 건 조금 더 자란 다른 아이의 몫이었던 거죠.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림에서 이런 차가운 현실이 함께 담겨 있는 게 조금 씁쓸하네요.

위작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24년

박수근 화백은 과거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 있었던 만큼 위작 논란이 많았던 화가 중 한 명인데요. 2024년 LA에서 열린 '박수근 판화 특별초대전'에선 전혀 처음 보는 이상한 작품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라고 전시됐습니다. 박수근 연구소 등 미술 관계자들이 항의했지만 LA 미술관 측은 이를 무시했고, 큰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민원을 넣자, 그때 서야 위작 판별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이후에야 전시회에서 문제의 그림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미술 업계가 세계적으로 낮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죠.

그 어려운 시절에도 박수근 화백은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카메라 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제분들이 박수근 화백이 그린 모든 작품이 담긴 사진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에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림을 감상할 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학생 여러분, 문화생활에 있어 평소 그림 전시회나 미술관을 많이 방문하는 편이신가요? 보통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감상하는 걸 더 어려워한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월간 미술 세계'의 담당자는 "미술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느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전시로 학생들이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근 판화전은 박수근 연구소의 저작권 협조를 받아 '월간 미술 세계'의 주관으로 강남 멀버리힐스 갤러리 엘리어에서 지난 4월 2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다음 전시는 성북동 갤러리 반디트라소에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린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서 박수근 화백의 따뜻한 감성을 그저 마음이가는 대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박현진 연구원



전시장 입구에 울퉁불퉁한 판화의 표면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디지털판화가 걸려 있습니다.



탐방정보 CHECK

디지털판화 에디션 넘버

디지털판화는 원화만큼은 아니지만 꽤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작품 왼쪽 아래에는 복제된 작품의 총 개수와 해당 작품이 몇 번째 복제된 작품인지가 쓰여 있는데, 이번 전시에 걸린 모든 작품은 "12/30"으로 30개 디지털 판화 중 12 번째 작품입니다.

왜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에 끌릴까요?



최병일 교수님의
길 위의 경제학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쉬는 시간에 어디에 앉을지, 급식 줄에서 누구와 설지, 수행평가 발표를 말할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선택 속에는 사실 우리의 기억과 습관 그리고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꼭창가쪽에 앉고, 또 어떤 친구는 운전기사님 바로 뒤쪽에 앉죠. 이런 행동은 사실 예전에 앉았을 때 편했던 기억, 혹은 익숙한 느낌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전에 하던 대로' 선택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게 익숙하거나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예요. 경로 의존성은 단순히 버스 자리가 고르는 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 운동 경기, 친구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팀을 나눌 때 어떤 친구는 꼭 먼저 지목됩니다. 왜일까요? 그 친구가 키가 커서?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저번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 행동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빈이는 지난번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현우는 언제나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하니까, 이번에도 맡겨도 되겠지." 이걸 단순히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체 스포츠나 시험, 발표 등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일들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시합에서 어떤 팀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음에도 이상하게 자주 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할 순간에 흐트러지는 습관, 혹은 지는 것에 익숙해진 팀 분위기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처럼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팀의 성적, 개인의 평판, 그리고 다음 기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걸 공부나

발표, 수행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준비해 온 친구는 자연스럽게 발표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경험을 지켜본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습관과 경험은 자신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를 벗어난 세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할 때 꼭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관은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딱 몇 분 만에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반장을 맡아 친구들과 갈등을 조정하며 함께 학급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혹은 "학교 축제를 직접 기획하며 예산을 관리했고,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단순한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면접관은 이런 문장을 통해 그 사람의 책임감, 협동심, 기획력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현재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이력(경험)을 경제학에서는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했던 일과 쌓은 경험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력서를 보듯, 기업을 평가할 때는 주로 주식 그래프(chart)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트는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력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 예전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주가가 최근 1년간 꾸준히 상승했다면, 사람들은 '이 회사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거나, 큰 폭의 하락을 보인 회사는 '위험할지도 몰라' 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결국 차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기업의 평판과 성과, 위기 대응력까지 담긴 경험입니다. 즉 일종의 '회사 이력서'인 셈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누적되도록 노력합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경제용어CHECK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정보를 가진 쪽은 신호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직자가 자격증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래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아자디 타워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김창현 선생님의
국제관계 토크아보기

IT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구글’이라는 회사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한국 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강남의 ‘테헤란로’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테헤란로는 그 이전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많은 IT 기업이 탄생하고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테헤란’로 이 이름,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테헤란은 놀랍게도 이란의 수도입니다. 1977년 테헤란시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며 생긴 것으로, 이란에는 ‘서울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란’의 정체성과 이란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동’ ‘이슬람’ ‘아랍’, 이 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동’은 지리적·정치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의 지리적 개념들은 유럽 사람들이 나눈 것이어서 중동(Middle East)도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서쪽과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포함됩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적 개념입니다. 유일신인 알라를 믿고 따르는 종교로, 전 세계적으로 약 19억명의 신자를 가진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며,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 절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은 문화적·언어적 개념입니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랍인입니다. 아랍어는 쿠란의 언어이기도 하여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지방에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은 모두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이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란은 ‘중동’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부터 시작해봅시다. 중국의 서쪽 끝에 맞닿아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이 아프가니스탄 서쪽에 맞닿아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서쪽의 이라크, 이란 동쪽의 아프가니스탄도 모두 중동임을 생각해보면 이란도 당연히 중동국가입니다.

두 번째,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란의 공식 명칭은 ‘이슬람 이란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니, 이보다 더 확실하게 이슬람 국가임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에 아예 박혀 있을 정도로 ‘이슬람’은 이란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로, 사회의 모든 부분의 근간을 이룹니다. 다만 이슬람교에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 국가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85% 정도는 수니파, 15% 정도는 시아파로, 이란 국민의 약 90%는 시아파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란어, 정확하게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글로 쓴 페르시아어를 언뜻 보면 아랍어와 비슷합니다. 아랍어의 문자를 조금 바꿔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는 전혀 다른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이 오랜 기간 이슬람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주 언어인 아랍어 어휘가 페르시아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 페르시아어로 ‘에슬람’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는 한국어의 어휘 중 상당 부분이 한자인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말과 한글에 자부심이 있듯, 페르시아어는 이란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페르시아어의 ‘페르시아’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말입니다. 페르시아를 잘 몰라도 그리스와 로마는 들어봤을 거예요.

서양에 그리스와 로마제국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었다면 지금 이란 지역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및 로마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이란인들은 스스로를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란의 국제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천외고 영어교사



중동

지리적 개념
이란은 중동국가

이슬람

종교적 개념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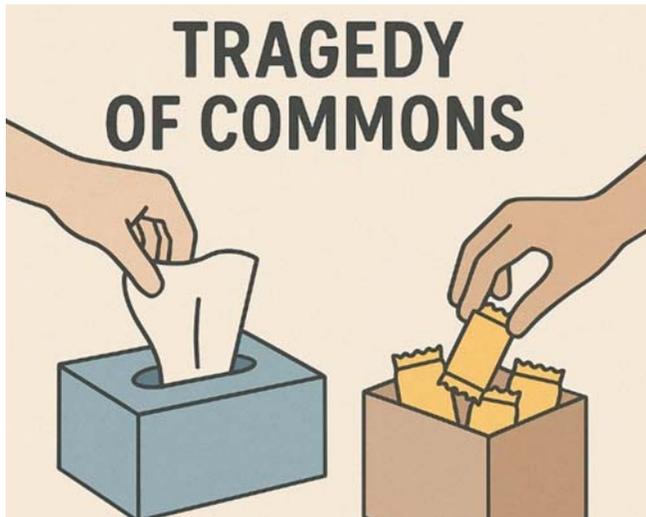
아랍

언어적 개념
이란은 페르시아어 사용 국가

학교 화장실 휴지는 왜 더 빨리 떨어질까?



틈새경TEST
공부합시다



챗GPT가 생성한 '공유재' 관련 이미지.

자신이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경제재(economic good) 또는 사적재(private good)라고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한 끼의 점심 식사, 식후 디저트와 커피 한 잔, 내가 입는 옷, 내 스마트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재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인 배제가능성(excludability)과 '한 사람이 쓴 만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성질'인 경합성(rivalry)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재화는 시장실패만 없다면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공급과 소비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모든 재화가 이와 같이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공공도서관의 열람실과 도서, KTX 역사내 화장실 휴지,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은 경합성은 강하지만 배제가능성은 약한 재화입니다. 이러한 재화를 공유재(commens) 또는 공유자원(common resource)이라고 합니다.

배제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은 명확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재화는 먼저 발견해서 쓰는 사람의 차지(first come, first served)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남용이나 고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 학교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돼 있지 않은가?'라든가 '왜 회사 탕비실 간식은 빨리 떨어질까?'에 대한 훌륭한 설명인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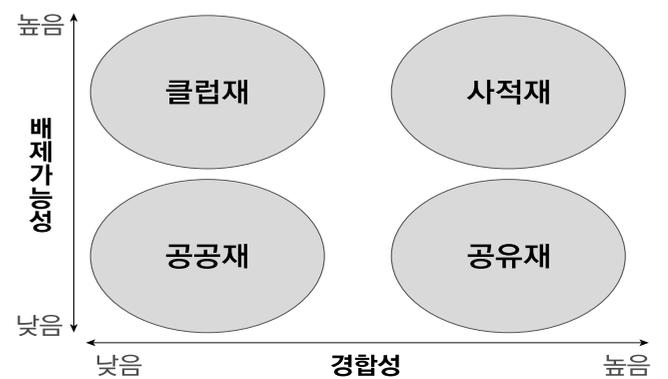
경합성은 약하지만 배제가능성이 강한 재화도 있습니다. 이를 클럽재(club good)라고 하며,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와 같은 구독 서비스 대부분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서비스를 온전히 즐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지불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이 모두 약한 재화도 있을까요? 일기예보, 재난알림 문자, 치안과 국방 서비스 등이 그 사례로 이를 공공재(public good)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화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사회적 이익이 커집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신이 비용을 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가 공급되면 자신도 슬며시 한 손갈 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s problem)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만큼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나는데 이를 '공공재의 문제'라고 합니다. 치안과 국방 서비스 등 대부분의 필수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 분류



그러면 공공재는 얼마나 공급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0명이 거주 중인 한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과 주차장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 한다. 설치비용은 대당 40만원이고, 설치된 CCTV 수에 따라 각 세대가 얻는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다음 중 이 다세대 주택에 설치해야 할 적정 CCTV 수는?

CCTV 수와 가구당 편익

CCTV 수(대)	1	2	3	4	5
가구당 편익(만원)	8	15	20	23	25

- ① 1대 ② 2대 ③ 3대 ④ 4대 ⑤ 5대

다세대 주택에 설치될 방범용 CCTV의 경우 한 사람이 얻는 편익(주거안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경합성이 없습니다. 또 설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편익을 얻는 것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즉 배제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방범용 CCTV는 공공재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재화를 추가로 공급할 때 늘어나는 사회적 편익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 전자가 크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후자가 크다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CCTV 한 대 늘릴 때마다 40만원이 들고, 사회적 편익은 CCTV가 0대에서 1대로 늘 때 80만원, 1대에서 2대로 늘 때 70만원, 2대에서 3대로 늘 때 50만원, 3대에서 4대로 늘 때 30만원, 4대에서 5대로 늘 때 20만원 증가하므로, 3대까지 설치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정답은 ③ 최봉제 매경아카데미 책임연구원



경제용어 CHECK

시장실패

불완전경쟁, 외부 효과, 비대칭 정보, 무임승차자의 문제, 소유권의 부재로 시장 거래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만의 경험, 스토리에 녹여보세요

일주일 후, 지후는 자신 없다는 표정으로 글을 내밀었습니다. 자기를 알린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글에는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였지만, 인상 깊지는 않았습니니다. 삼촌은 지후에게 써 온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지후는 글을 읽으며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후가 처음 써 온 자기소개서〉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를 녹화하고 편집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직접 '롤' 하이라이트 영상을 몇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잘한 장면만 모았지만, 점점 더 멋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상을 만들다 보니, 영상 제작이 제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자 독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게임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이야기와 연출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에는 끝까지 몰입하는 성격입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 수정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 협업 경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미디어고에서 영상 제작 기술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법도 배우고 싶습니다.

디지털미디어고에 입학한다면 창의적인 영상 제작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더 깊이 탐구하고, 저만의 개성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수 선생님의 글쓰기 교실

삼촌: 지후야, 처음 쓴 자기소개서인데 잘 썼어. 쓰면서 힘든 거는 없었니?

지후: '나를 알린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에 대해 쓸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삼촌: 그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야. 글을 쓰기 전엔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모르거든. 글을 써 보면 자신을 더 알게 돼.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지후: 뭔가 부족하고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촌: 왜 평범하다고 생각했니?

지후: 그저 그런 이야기니까요.

삼촌: 맞아. 그 이유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야.

지후: 스토리요? 그냥 사실을 쓴 건데요?

삼촌: 그게 문제지. 사실을 나열하면 읽는 사람은 지루해.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를 써야 해. 그걸 연결하면 스토리가 되는 거야.

지후: 왜 스토리처럼 써야 해요?

삼촌: 그래야 글을 읽는 사람도 지후라는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고 재밌거든. '이 학생, 뭔가 다르네' 하고 말아야.

지후: 재미도 있어야 한다면 길 길이 머네요. 어휴!

삼촌: 한숨부터 쉬다니, 설마 벌써 포기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

지후: 선배에게 들었는데,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된다고.

삼촌: 맞아! 거짓말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지후: 그건 모르겠어요.

삼촌: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면접 질문과 이어지기 때문이야.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나겠지. 그리고 면접관들은 단순한 나열도 싫어해. 왜냐하면 수백 개의 자소서를 한 번에 읽어야 하거든. 읽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길을 끌지 못하면 대충 넘어가거든. 그래서 관련 있는 핵심만 쓰는 게 좋아. 그 밖에 학교가 금지하는 것들도 있으니 참고해야 해.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외부 수상 실적이나 부모, 친척의 이름, 직장명을 쓰는 것은 금지 사항이야. 학교마다 다르니까 주의해야 한다.

지후: 난 어차피 외부 수상 실적 같은 건 없어서 안 썼지만 의외인걸요.

삼촌: 그렇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더라고.

지후: 어떻게요?

삼촌: 종이에 써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뀐 데도 많아. 그리고 학교마다 묻는 문항이 달라. 어쨌든 글로 표현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후: 왜 그럴까요?

삼촌: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묻는 문항을 먼저 조사해야 해.

지후: 그렇구나. 그러면 디지털미디어고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묻는 문항은 뭘까요?

삼촌: 삼촌이랑 조사해 보자.

지후: 네,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갈게요.

글쓰기 꼭꼭!

1. 자기만의 스토리로 연결해 보세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넣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연결하여 특별한 스토리가 되도록 정리하세요.
2. 거짓이나 과장은 금물! 면접에서 검증됩니다.
3.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문항을 미리 조사하세요.
4.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관련성 있는 핵심 내용만 담아야 합니다.

교육실천이음연구소 연구위원

‘나’를 지키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이병철 시인의
시 소개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유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한 알을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나에게 바짝 다가오세요

혼자 살면서 저를 빠르게 알게 되었어요
화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일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나 봐요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제주에 온 많은 여행자들을 볼 때면
제 뒤에 놓인 물그릇이 자꾸 쏟아져요
이게 다 등껍질이 얇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들이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주에 부는 바람 때문에 깃털이 다 뽑혔어요,
발전에 끝이 없죠

매일 김포로 도망가는 상상을 해요
김포를 훔치는 상상을 해요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훔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제주에 사는 웃기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을 웃기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많이 웃죠
제주에는 웃을 일이 참 많아요
현상 수배범이라면 살기 힘든 곳이죠
웃음소리 때문에 바로 눈에 띄일 테니까요

이원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문학동네, 2020)

바쁘고 치열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은 나의 것인가?” 하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데 늘 불안해요. 이 길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실패일까 봐서요. 아니 그것이 성공이라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서요. 좋은 회사, 큰 집, 고급 승용차, 명품...남들이 다 선망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좋다고들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욕망은 내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것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떠올라요.

‘고독한 군중’을 쓴 데이비드 리스먼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내면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행동하는 ‘타자지향형’ 인간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욕구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즉 외부로부터의 승인을 원하며 행동한대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자동차를 자랑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요. 처음엔 “내가 좋아서”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원하는 걸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진짜 ‘나’는 점점 지워져요.

세상에서 내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을 때 이원하 시인의 시를 읽어요. 은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하거나 혼잣말처럼 독백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요즘의 시들과 달리 이원하 시인의 시는 편안하고 산뜻하게 읽혀요. 신춘문예에 당선했을 때 심사위원들로부터 이미 “거두절미하고 읽게 만드는 직진성의 시”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어요. 하지만 쉽게 읽힌다고 해서 담아내고 있는 인식마저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화자는 “제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는 고독의 상태이므로 화자에게 ‘제주’는 유배지나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유배지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인 것에 비해 시인의 제주는 “제주에 온 많은 여행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장소예요. 그러나 화가의 기질을 가진 데다 얇고 연약한 감수성을 지닌 화자는 타자와 좀처럼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애인이 없나 봐요”라는 혼잣말은 남들과 비슷한, 보편적 인간이 되지 못해 고독해진 “웃기고 이상한 사람”의 자기고백이에요.

그럼에도 화자는 “남을 웃기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많이 웃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존재성을 유지한 채 타자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해요. 사회 집단에 속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 생각을 포기하고 타인과 비슷하게 스스로를 맞춰가는 대신 “나의 정체는 끝이 없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며 “저에게 바짝 다가오세요”라고 손짓하는 것이죠. 이 건강하고 활달한 소통의 방법론은 개인을 획일화되고 일률적인 틀에 종속시키려는 제도 사회와 타인들의 욕망을 무력화해요.

고독을 견디기 힘들 때면 보편적이고 평범한 교류 사회인 ‘김포’로 도망가거나 그곳을 훔치는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훔치진 않을 거예요”라고 이내 마음을 고치는 순간, “제주에는 웃을 일이 참 많아”진대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지만,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버릴 수 없다는 유쾌한 태도가 동력이 되어, ‘제주’라는 ‘혼자’의 장소에 새로운 유대의 가능성을 움트게 하는 것이죠.

남들이 욕망하는 걸 똑같이 욕망하며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대신 “웃기고 이상한 사람”이 되길 선택할 때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타인에 의해 무엇으로 쉽게 규정되지 않는 개성적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 파도가 실어오는 수국 향기를 맡으러 제주 종달리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맘껏 웃고 쉬고 걷고 ‘나’답게 지내다 올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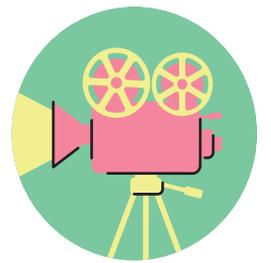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시집 표지. 매경DB

당신 안의 ‘악마’는 언제 ‘천사’로 바뀌나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장면.

오디컴퍼니



문화로 만나는 세상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다정한 신사이자 선한 의사 ‘지킬’,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 거칠고 폭력적인 본성 ‘하이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 내면의 이중성과 위선을 정면으로 그리며 한국에서 20년 넘게 사랑받아 왔어요. 수많은 배우들이 지킬과 하이드를 오가며 명연기를 펼쳤고, ‘1인 2역’이란 극한의 도전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안겨줬죠. ‘지킬 앤 하이드’는 작년 11월 29일부터 절찬리에 공연 중이며 올해 6월 1일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원작 소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킬 앤 하이드’는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원작으로 해요. 소설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겉은 도덕적이지만 속은 위선적인 사회 속 인간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이야기는 지킬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어터슨’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요. 어터슨은 지킬과 하이드의 정체를 추적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고 독자도 함께 퍼즐을 맞추듯 이야기에 빠지게 되죠. 작가는 “사람 안의 선과 악은 분리될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전개 방식이 달라요. 관객은 처음부터 지킬이 하이드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추리보다는 지킬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죠. 뮤지컬 속 지킬은 약혼녀 엠마와 매혹적인 여인 루시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자아가 분열되는 고통을 노래와 연기로 표현하는데요. 인간의 이중성과 위선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철학보다는 감정, 논리보다는 강렬한 무대 연출에 더 무게를 둡니다. 새롭게 태어난 뮤지컬은 관객이 작품의 메시지를 더 가까이에서,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 줘요.

지킬 앤 하이드가 던지는 메시지: 이중성과 위선

작품은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극은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되는데요. 선한 지킬 박사는 자신이 만든 약으로 또 다른 자아인 하이드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하이드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지킬 안에 숨겨져 있던 본성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작품은 하이드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겉으로는 고결한 지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억눌린 감정이 숨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죠. 결국 착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악한 감정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객은 “혹시 내 안에도 하이드가 있지는 않을까?”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돼요.

1인 2역이 만들어내는 전율과 명곡의 향연

‘지킬 앤 하이드’의 가장 큰 매력은 1인 2역 연기예요. 한 배우가 지킬과 하이드를 오가며 인간의 이중성을 강하게 보여주죠. 배우는 말투나 표정만 바꾸는 게 아니라 대사와 시선, 심지어 왼손과 오른손을 다르게 쓰면서 지금 무대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요. “하이드! 지옥에서 썩어 문드러져라!” “그럼...지옥에서 만날까, 지킬!”

이 대사가 등장하는 ‘컨프런테이션(The Confrontation)’은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예요. 지킬일 땐 밝은 조명과 또렷한 목소리, 오른손이 강조되고 하이드일 땐 어두운 조명과 거친 목소리, 왼손이 사용돼요. 한 무대에서 두 인물이 마주하는 이 장면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요.

‘지킬 앤 하이드’는 훌륭한 앙상블로도 유명해요. ‘파사드(Facade)’는 모든 배우가 함께 부르며 선과 악, 상류층과 하층민의 대비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머더, 머더(Murder, Murder)’는 살인 사건 뒤의 혼란을 묘사하며 긴장감을 높이죠. 앙상블의 힘이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뚜렷한 주제 의식과 잊히지 않는 넘버들로 관객 마음 속 깊이 남는 ‘지킬 앤 하이드’. 극이 끝난 뒤 무대를 향한 뜨거운 박수, 여러분도 함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남궁석 인턴기자



문화정보 CHECK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

지킬이 굳은 결심을 하는 내용의 넘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이기도 합니다.

얼라이브 2(Alive 2)

지킬이 하이드로 변신해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내용의 넘버입니다. 1막의 마지막 넘버이자 하이드의 광기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면입니다.

“에취~”... 봄꽃 소식이 달갑지만 않은 이유는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게티이미지뱅크

봄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에 친구들과 가까운 공원으로 놀러 간 수현이. 들뜨는 마음으로 산책길을 거닐던 것도 잠시, 손발이 가려운 데다 눈물이 줄줄 콧물이 흘쩍. 자전거를 타려는 친구들을 뒤로한 채 먼저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봄꽃이 세상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지만 이런 풍경이 달갑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수현이 같은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입니다. 꽃이 피는 4~6월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진 꽃가루 알레르기는 무슨 병일까요.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
꽃가루 위험하게 여겨

미성숙한 청소년기
발병 위험 더 높아

꽃가루 피하는 게 최선
외출 줄이는 것도 방법

우리 몸이 ‘꽃가루’를 병원균으로 착각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을 유해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이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꽃가루, 동물 털, 집 먼지, 곰팡이 등이 흔한 원인 물질입니다. 꽃가루에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가 생긴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이죠.

인체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쁜 자극을 받으면 ‘히스타민’이란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꽃가루 같은 외부 물질을 위험하다고 착각했을 때도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면역체계(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각종 요소에 대응하는 시스템)가 미성숙해서 알레르기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을 가졌다면 자녀에게도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정확한 치료 필수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은 봄철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등에서 날리는 꽃가루입니다. 가을엔 돼지풀, 썩등잡초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은 벌이나 나비가 꽃가루를 옮기기 때문에 알레르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봄·가을만 되면 가려움이 심하고 콧물이 줄줄 흐른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피부 검사 등으로 진단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알레르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합니다.

박유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알레르기는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며 “특히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회피·면역·수술 등 치료법 다양

꽃가루 알레르기에는 회피·면역·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피 요법은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는 문을 닫아 꽃가루를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코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비염 등이 심할 때 이를 교정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면역 치료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원인 알레르기 물질을 소량 직접 몸에 투여해 면역 체계를 적응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 종류의 꽃가루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외출 자제하고 위생 철저히 지켜야

무엇보다 꽃가루를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해 매일 꽃가루 농도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4단계로 나눠 예보하고 단계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편이라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어도 창문을 닫아 꽃가루의 유입을 막습니다. 외출이 불가피하면 선글라스와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외출 후에는 즉시 손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또 취침 전 샤워를 해 침구류에 꽃가루가 묻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경헬스 기자



우리 뇌를 위협하는 ‘숯폼’

대전중학교 3학년 한예은

최근 짧은 동영상인 ‘숯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11월 전국 초·중·고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5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94.2%가 ‘숯폼’ 콘텐츠라고 답했습니다. ‘숯폼’이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항목임에도 단숨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숯폼’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숯폼은 짧고 자극적인 구성으로 도파민을 유도해 강렬한 쾌감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되면 자극에 대한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집중력 저하, 문해력 감소,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가 아직 발달 중인 청소년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스스로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가 식탁을 바꾼다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박하늘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 폭염, 태풍 등 극단적 기후는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 영향을 주며, 특히 농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저하와 공급 불안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경제학에서는 ‘기후’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합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기존 농업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대체식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곤충 식품, 배양육, 식물성 고기 등은 기존 축산업이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적은 자원으로 고단백 영양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생소하지만, 이런 작은 도전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식탁 위 음식이 바뀌고 있는 지금, 이것은 경고이자 기회일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논두렁’ 잔디…축구 팬도 불만

지축중학교 2학년 정재민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오랜 시간 축구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와 맞지 않는 잔디 품종에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권장하는 유럽식 한지형 잔디는 여름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한국의 기후에서 급속히 품질이 저하됩니다. 전문가들은 잔디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잔디 관리를 중요한 인프라 투자로 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장별로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토트넘 홋스퍼 구장은 실내 특수 조명을 이용한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관뿐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한국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은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잔디는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기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더 이상 ‘논두렁 잔디’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브이로그, 10대의 새로운 일기장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서지아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브이로그 촬영’은 인기 취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굣길, 급식 리뷰, 친구들과의 추억까지 브이로그를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표현력과 기획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브이로그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섭니다. 10대들의 브이로그 열풍은 ‘자기 표현의 욕구’와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속감 추구’라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이게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등굣길을 브이로그로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소수의 친구들과만 보던 영상이 점차 “나도 비슷해”라는 공감을 얻으며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친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됩니다.

브이로그는 10대들에게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오늘의 나를 기록하고, 소소한 하루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카메라를 켜며 누구보다 솔직하고 치열하게 성장하는 10대들의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 2024-254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50회

틴매경 TEST



매일경제 아카데미
*공식 인스타그램
@mknews_lab



*공식 유튜브
매테나

시험일
2025.05.24(토)

접수기간
2025.04.07(월)
~ 05.12(월)

럭키비키쿠폰



틴매경 TEST
적신강림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손현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